

《좌전》《논어》 "상표리"설과 동아시아 경전 호증 전통의 변천

——다케조에 미츠히로(竹添光鴻)의 《논어회전》과 강병장(姜炳璋)의
《독좌보의》 비교

오거쟁(푸젠의과대학)

【요약】

청대 경사 관계의 사상 영향 하에서 강병장과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모두 《좌전》과 《논어》의 관계를 논했다. 전자는 "《좌전》이 《논어》를 표리한다"는 설을 제기하여 양자의 의리가 상통함을 천명하고자 했다. 후자는 중일 학설을 겸채하여 "어유(語由)"의 방법을 탐구하고, 《좌전》 등의 사실을 빌어 《논어》의 역사적 맥락 재건에 힘써 강병장의 "표리설"에 대한 돌파를 실현했으며, 다케조에 학술 체계 구축에 방법론적 의의를 제공했다. 동시에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해경 방법 돌파는 메이지 시기 일본 학자들의 중국 경학 방법에 대한 재지화(在地化) 개조를 반영한다. 이로써 《논》《좌》 호증 전통의 동아시아에서의 변천 궤적을 명확히 하고, 한학의 초문화 전파에서의 방법론 혁신을 이해하는 전형적 사례를 제공한다.

【키워드】

표리《논어》; 어경 환원; 《논》《좌》 호증; 재지화 개조

1. 서론: 문제 제기

다케조에 미츠히로(竹添光鴻, 1842-1917), 자는 점경(漸卿), 호는 정정(井井), 일본 아마쿠사군 가미무라 사람으로, 메이지 시기의 저명한 한학자이다. 중국에서 천진 총영사 등직을 역임했으며, 유원(俞樾), 왕선겸(王先謙), 심증식(沈曾植) 등 많은 석학들과 교유했고, 《잔운협우일기병시초》, 《독포루시문고》 등을 저술했다. 메이지 17년(1893) 갑신정변 후 관직을 사퇴하고 경전 주석에 전념하여 《좌전회전》, 《모시회전》 및 《논어회전》 "삼전(三箋)"을 완성했으며, 학계의 중시를 받았다.

그중 《좌전회전》은 "학사원상"을 수여받고 《한문대계》 총서에 수록되어 중일 학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나머지 두 책, 특히 《논어회전》은 메이지 20년대 후반 이후 주경 사업이 감퇴하고 강경 사업이 당시 신식 교육의 주류가 되면서, 《논어》연구가 강의 형식으로 성행함에 따라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주경 작품은 당시 《논어》연구의 변방으로 전락했다.

현재 《논어회전》에 대한 대표적 연구자로는 김배의(金培懿)와 오봉(吳鵬) 두 학자가 있다. 김 선생은 원문에 입각하여 "복원"과 "발명" 두 가지 연구 경로로 《논어회전》의 주소 체제와 주경 방법을 상세히 귀납·총결했으며, 청대 고증학의 영향과 일본 본토 학술 전형의 배경 하에서 청조 고증학과 내재적 연관성을 지적하고,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균경 신주를 "교토 지나학의 태동"으로 정위했다. 오 선생은 더 나아가 《논어회전》과 교토 중국학파의 시조 가노 나오키(狩野直喜)의 《논어연구》를 비교하여 양자의 학문 방법과 풍격의 내재적 연계를 탐토하고, "다케조에학"이 일본 근대 중국학의 태동적 지위임을 논증했다.

김, 오 두 선생의 《논어회전》 연구는 사료, 해독, 논단 등 여러 방면에서 상세하고 유력하다. 그러나 "삼전"이 다케조에학의 주간을 구성하는데, 세 자 간의 상호 작용과 상호 천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김 선생이 비록 《좌전회전》과 《논어회전》의 관련을 논했지만 편폭이 많지 않다.

중국 유가 경전은 동아시아 한문화권에서 상호 천석의 전통을 형성했으며, 유가 경전은 고립된 텍스트가 아니라 경과 경 사이에 상위표리의 관념이 선진시대부터 이미 언급되었다. 《효경위》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자왈: 오지재《춘추》, 행재《효경》."

송인 마정란(馬廷鸞)은 《상서》의 "절망어당세"와 《논어》의 "유망어래세"의 편찬 결미로 일종의 역사철학을 제시하여 "《상서》와 《논어》가 상표리한다"는 설을 제기했다. 《춘추》 공양학으로 《논어》를 표리하는 것은 한대 하휴(何休)에서 시작되어 청대 경학가들이 이를 계승했는데, 유봉록(劉逢祿)의 《논어술하편》, 강유위(康有為)의 《논어주》 등이 그것이다. 경과 경의 상표리에 대해 장지동(張之洞)도 상세히 언급하며 십삼경 사이에 "의가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인정했다.

각 경 사이의 표리설은 비록 논표가 있지만, 《좌전》과 《논어》에 대해서는 청인 강병장이 처음 창시했다. 강병장(1736-1813), 자는 석정(石貞), 호는 백암(白巖), 상산단성(지금의 Ningbo 상산현) 사람이다. 석천, 강포 두 지역의 지현을 역임했으며, 그간 경세선정을 베풀고, 해직 귀향 후 저술에 유심했다. 제경사에 모두 강해가 있으며, 특히 치경에 정통하고 경의 발휘를 중시했다. 《주역》《시경》《주례》《춘추》에 모두 저작이 있으며, 그중 《좌전》에 극히 심력을 쏟아 《독좌보의》 50권을 저술했는데, 건륭 21년에 시작하여 건륭 37년에 완성하여 거의 15-16년이 걸렸다. 그는 이 책에서 독창적으로 《좌전》이 "《논어》를 표리한다"는 설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다케조에 미츠히로가 저술한 《논어회전》에서 《춘추삼전》을 인용한 것이 400여 조에 달하며, 《좌전》이 독점적으로 300여 조를 차지하는 현상은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비추어 본문은 두 사람의 《좌전》《논어》 양서 관계에 대한 이해와 연구 경로의 이동을 입수점으로 하여, 다케조에 미츠히로가 강병장 관점을 계승하고 돌파한 것을 탐명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한학 체계에서 경전 호전 전통의 형성 맥락과 천석 범식을 탐토했다.

2. 표리설과 진량론

《논어》는 유가 사상, 경학사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며, 역대 학자들이 일찍이 인식했다. 한인 조기(趙岐)의 《맹자제사》에서 "《논어》는 오경의 관할이요, 육예의 후금이다"라고 했다. 청유 진례(陳澧)의 《동숙독서기》에서 "경학의 요체가 모두 《논어》 중에 있다"고 했다. 청유 정정조(程廷祚)의 《논어설》 서문에서 "《논어》는 육경의 통회요, 대도의 권형이다"라고 했다. 근인 서영(徐英)의 《논어회전도언》에서 "육경의 가르

침이 교통하여 상호 유통하니 맥락이 서로 관통하는 것과 같고 모두 《논어》에 나타나니, 고로 《논어》는 육경의 총의라고 한다"고 했다. 가견한 바와 같이 《논어》 일경으로 경학 연구의 문약을 열 수 있다. 기왕 이러하다면, 강병장과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논어》와 《좌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1) 강병장과 《좌전》《논어》 상표리설

강병장의 제자 모승(毛昇)이 《예언》에서 "《독좌보의》 일서는 우리 스승이 선현의 석경지의를 천발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로 보아 이 책의 의도는 《춘추》 대의를 천발하는 데 있다. "보의"라고 명명한 것은 양한 이래 역대 제가가 《춘추》의 의를 천술한 것이 매우 많기 때문이다. 동중서는 "《춘추》는 대의의 근본이 되는 것인가? 육자의 과, 육자의 지를 말하는 것이다. ... 좌의 원천의 심천을 논하여 법주를 정한 후에 절속의 분별이 명확해지고, 의를 세워 준비의 서열을 정한 후에 군신의 직분이 밝아 진다"고 했다. 진 두예는 《춘추》의 의를 귀납하여 "성인이 노사에 문하고 주도에 뜻을 두었다. ... 의가 있으니 예전을 예시하고 참란을 펴내하고 왕을 존중하여 법을 행한다"고 했다.

강병장은 광범위하게 수라하고 정준하게 연습하고 박채중설한 후에 제설이 밝히지 못한 것을 자기 설로 보충했다. 《춘추》는 기사가 간략하여 전주가 없으면 그 의가 난현하므로 삼전이 있다. 송대 가현웅(家鉉翁)은 "《좌전》을 관하지 않으면 당시의 일을 알 수 없고, 《공》《곡》을 읽지 않으면 성인이 법을 수립한 의도를 알 수 없다"고 했다. 《공》《곡》은 본래 경의로 논설하는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지만, 강병장은 "《춘추》의 의를 발명한 것은 《좌씨전》에서 시작했다"고 여겼다. 그가 원인을 논설할 때 지적하기를:

좌씨는 성인의 무리로서 국사가 되어 책서를 천견하고, 널리 열국의 기재를 채집하여 회취하여 전을 만들어 《춘추》의 대의를 발명하여 성인이 인용하되 발하지 않은 것이 간책 사이에 소연하게 했다. 반씨가 말한 본사를 논하여 전을 지은 것은 공언으로 경을 설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사에 즉하여 경을 만든 것이 성인의 의이고, 본사를 논하여 전을 만든 것이 좌씨가 경의 의를 발명한 것이다. 모두 공언으로 경을 설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다.

《강령하》에서 또 이르기를:

전을 읽는 자는 모두 말하기를: 좌씨의 전은 사가의 종이라 한다. 마득기(馬得其奇), 반득기아(班得其雅), 한득기부(韓得其富), 구득기완(歐得其婉). 그 일체를 가져도 모두 후세에 문명을 날렸는데, 억지로 전이 문이 아니라 성인의 경임을 안다. 문이 극히 공교로운 것은 바로 경의를 발휘하는 것을 공으로 삼기 때문이다. 전이 사가 아니라 성경의 의를 전하는 것이다. 사가 극히 구비된 것은 바로 경의를 천명하는 것을 비로 삼기 때문이다. 모를 취하고 그 신을 유기할 수 있겠는가?

공자는 노국 사기에 근거하여 삭제하거나 산삭하여 그 주의를 발휘했다. 공자는 사관이 아니라 역사의 형식을 빌어 그 의리를 표달했으므로 공자가 말하기를 "나를 아는 자는 오직 《춘추》일 것이고, 나를 죄하는 자도 오직 《춘추》일 것이다"라고 했다. 이 두 단락에서 볼 수 있듯이 강병장은 춘추대의가 구체적인 역사사건에 의해 승재됨을 강조하고, 좌구명이 사로 전을 지은 것을 공자가 노사에 거하여 《춘추》를 지은 것에 대비하며, 좌구명이 공자에게 경을 받았고 그 신분이 국사여서 간책을 친견할 수 있어 열국의 사를 재집하여 전을 만들어 성인의 의를 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두 가지를 강병장은 《강령하》에서 제기한 "궁승성교"와 "친견책서"에서 매우 상세히 논술했다. 고로 그는 《서》에서 또 "춘추는 성인이 아니면 지을 수 없고, 좌씨가 아니면 술할 수 없으니, 지은 자는 사에 즉하여 경을 만들고, 술한 자는 본사를 논하여 전을 만든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좌전》이 비록 사가의 종이고 "사가 극히 구비"하며 "문이 극히 공교"하지만, 최종 목적은 모두 경의를 천명하는 데 있으며, 후세는 본말을 도치하여 "모를 취하고 그 신을 유기"할 수 없다고 여겼다. 《좌전》에 관련된 천문, 지리, 예악, 병형, 음양, 성률, 무의, 복축 등 내용의 요령은 "경의를 발명하는 데 있을" 뿐이다. 《춘추》의 경의를 구하려면 《좌전》이 기록한 사건 중에서 획취해야 하는데, 전유성(錢維城)이 《서》에서 말한 것처럼 "《춘추》는 사이면서 경이고, 《좌전》은 사이면서 경을 익히는 것이니, 그 의가 일치한다." "전의 의가 밝으면 경의가 크게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강병장이 《좌전》을 읽는 논리와 목적이다.

그렇다면 《좌전》과 《논어》는 어떻게 상표리하는가? 강병장이 보기에 육경은 모두 공자가 손수 정리한 것이고 "성인의 심법이 모두 《논어》에 나타난다"는 것은 유봉록

이 말한 "《논어》가 육경의 대의를 총괄한다"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좌전》은 "오경에 공이 되니, 이른바 오경의 여파이자 고성인의 우격"이다. 강병장은 《강령하》에서 십이선을 열거하여 모두 좌씨와 성인의 긴밀한 관련을 언급했는데, 그는 좌씨가 성인에 대해 "대개 성인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지 않음이 없다"고 여겼다.

첫째는 궁승성교로, 강병장은 좌구명과 공자의 사승관계를 역증했다. 좌구명은 노국 사관으로 중니에게 경을 받았으며, 비록 반드시 입실하여 제자로 칭해지지 않았지만 "일찍이 사례로 우리 부자를 섬기지 않음이 없었다." 둘째는 친견책서로, 좌씨와 성인이 공동의 재료 내원을 언급했다. 성인이 의를 세운 것은 많이 사관이 기재한 책서의 문에 근거하여 《춘추》의 경을 찬술했는데, 좌씨는 사관으로서 동양 당시의 책서를 볼 수 있어 성경대의를 얻었다. 셋째는 존왕중패, 넷째는 침병식민, 다섯째는 우익육경, 아홉째는 선선종장 악악종단이므로 그 사가 많이 서하고, 열째는 말에 힘증되지 않고 사에 상세하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그 설이 무가 아니다. 이 다섯 가지는 많이 좌씨와 성인 사상 내용의 취동성을 언급한다. 고로 강병장은 《논어》와 《좌전》 사이가 상표리한다고 단정했다.

물론 좌씨는 사사에 숙달하여 성인의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사로 의를 석하는 《좌전》이 "시비가 성인에게 그릇되지 않는 것을 종으로 삼는다"는 것이며, 강병장은 《좌전》을 《논어》를 해석하는 중요한 재료로 여기지 않고, 《좌전》이 사사로 "《논어》에 합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가 일종의 쌍향의 호증호보 관계라고 여겼다. 《논어》 중에는 중대한 사사가 《좌전》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강병장은 이에 대해 해석하기를: "《춘추》는 천자의 일이고, 《논어》는 일가의 책이니, 례가 다르고 문도 별도로다." 이로 보아 강병장의 표리설은 양서의 의리가 상통한다는 것으로 쌍향관계를 건립한다.

(2) 다케조에 미츠히로와 《좌전》이 《논어》의 수사진량이 되다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좌전》과 《논어》 관계에 대한 논술은 강병장과 다르다. 그는 《부유곡원대사서》에서 말하기를:

《논어회전》이 이미 성서되었다. 그러나 《좌씨》가 먼저 문세한 까닭은 학자로 하여금 공자의 세를 알게 하고 공문의 사적을 고려하게 하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봉건의

제도가 비록 주대에 이미 완비되었지만, 그 윤패도 주대가 가장 심했다. 동천 이후 왕실이 쇠망하고 제후가 발호했다. 이후 록이 공실을 떠나고 세경이 전정했다. 이에 향거리선의 법이 다시 물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공족과 거실만이 상, 장의 직위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공자의 성으로도 종신토록 도로에서 복복한 것은 그 시세 때문이다. 그러나 공자 경세의 대작용은 "인문이발, 축물이견"과 같은 것으로 좌씨의 전을 읽어야만 엿볼 수 있다. 공자를 잘 배운 자는 공문의 제자만한 이가 없다. 제군에서 과를 쓴 자(애공 11년)는 족어민의 염유이고(자로편), 막정에서 세 번 뵈는 자(애공 8년)는 합철의 유자이며(안연편), 가를 배운 번지(자로편)도 약하여 용우가 되었으니(애공 11년), 이는 공자를 배워 문사 중에 무비를 겸한 자이다. 무릇 계로의 일언의 중함은 제로 하여금 노와 평하게 했고(애공 15년), 자공의 사령의 민첩함은 심맹의 교오를 물리쳤으니, 이는 공자를 배워 응변제기하고 준조절충한 자이다. 이류는 역시 오직 좌씨의 전을 관할 수 있으니, 고로 좌씨를 읽어 공자의 세를 안 후에 《논어》를 삼복하여 신을 당시에 두고 명목하여 사유하면 공자의 학을 방불히 얻을 수 있으니, 이것이 좌씨 일서가 수사의 진량이 되는 이유이다.

유월(俞樾)이 《좌씨회전》을 위해 서문을 쓴 바:

군의 《잔운협우일기》를 읽으니 우리 중국 산천의 향배, 물산의 영허를 역력히 말하여 마치 장에 보이듯 하니, 또 군이 경세의 재능을 부하고 단지 장구에 침침한 자가 아님을 안다. 기이하여 군이 사에서 뜻을 얻지 못하고 병을 핑계로 귀전하여 종적이 마침내 소환했다. 작년 계묘년에 가남군이 와서 만났는데 군의 쾌서이다. 말하기를 군이 파관 이후 마음을 저술에 담심하여 《좌전》 일서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

이 해 가을 군이 서신으로 서문을 구했는데, 그 서신이 양양 천여 자로 대의는 공자의 도를 배우려면 공언에서 구해서는 안 되고 실사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좌씨는 《춘추경》에 인하여 전을 만들어 이백사십년의 사실을 구비했으므로 그가 저술한 《논어회전》을 내고자 하되 먼저 이 《좌씨회전》을 내는 것은 좌씨가 바로 수사의 진량이기 때문이라 한다. 군의 말을 음미하니 대개 경술로 세를 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소견이 훈고명물 밖에 있는 자이니 "학인"으로는 또 군을 다 할 수 없다.

이상 두 단락 재료에서 그 저술 차서를 명확히 해석했는데——《좌씨회전》이 《논어

회전》보다 먼저 문세한 원인은 공자의 도의 "대목적"을 탐명하는 데 있고, 《좌전》과 《논어》의 관계를 논급했다: 《좌전》은 《논어》가 승재한 공자 사상세계로 통하는 "진량"이다.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공자의 학이 역사 어경 밖의 추상적 도덕철학이 아니라 그 언설이 모두 "인문이발, 축물이견"으로 구체적인 역사 정경, 인물사건에 대해 작출한 회응이라고 여겼다. 춘추 말기 그 "왕실쇠미, 제후발호, 세경전권"의 예봉악괴의 세를 탈리하면 공자가 주유열국하고 급급히 용세한 현실 관회와 비민지심을 진절히 체회하기 어렵다. 따라서 《좌전》은 춘추사사를 상실하게 기재한 편년체 저작으로서 그 수요 공능은 《논어》를 연독하는 자를 위해 견실한 역사 좌표계를 구건하여 "공자의 세를 알게" 하여 《논어》 중 그 정련된 대화와 격언을 이해하는 데 견실한 배경 기초를 전정하는 데 있다.

개언하면 강병장은 《독좌보의》에서 "상표리"설을 제기했는데, 그 핵심은 《좌전》《논어》이서 의리의 상통과 사료의 호보에 있다. 《좌전》의 작의는 "《춘추》의 대의를 발명"하는 데 있고, 그 지귀가 성인과 동심이며, 그 의리가 "육경대의" 총회인 《논어》와 상통한다.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좌씨회전》에서 《좌전》을 "수사진량"으로 여겼다. 그는 공자의 도가 "인문이발, 축물이견"으로 구체적인 역사 정경에 깊이 식근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춘추사사를 상실하게 기재한 《좌전》은 《논어》 중 공자 언행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불가결한 교량이다. 학자는 수선 《좌전》을 통해 "공자의 세를 알아야" 비로소 설신처지하여 《논어》의 정의를 파악할 수 있다.

3. 전석 경로의 본질 차이: 관조와 환원

강병장과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좌전》과 《논어》 관계에 대한 전석은 두 가지 다른 경학 전석 경로를 대표한다. 강병장은 의리를 선으로 삼고 성인의 의를 단으로 삼아 구체적인 역사사건을 평판하고, 역사에서 의리를 석출하여 《논어》의 권위를 회응, 관조, 강화하는 데 치력했다.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좌전》을 주로 한 역사문헌을 빌어 《논어》 세계 중의 인물과 사건을 복원성으로 철합하고 정사명변, 궁원경위하고자 시도했다.

(1) 강병장이 《좌》의 "의리"로 《논어》를 관조하다

존왕중패 사상은 《논어》와 약합부절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관중을 논급할 때 많이 긍정했다:

관중을 물었다. 왈: "인야. 백씨변읍 삼백을 탈하여 소식을 반하되 몰치까지 원언이 없었다." (《논어·현문》)

자로왈: "환공이 공자규를 살해하니 소홀은 죽고 관중은 죽지 않았다." 왈: "미인호?" 자왈: "환공이 제후를 구합하되 병거를 쓰지 않은 것은 관중의 힘이다. 여기인! 여기인!" (《논어·현문》)

자공왈: "관중은 인자가 아닌가? 환공이 공자규를 살해했는데 죽지도 못하고 또 상이 되었다." 자왈: "관중이 환공을 상하여 제후를 패하게 하고 천하를 일광하니 백성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는다. 관중이 없었다면 나는 피발좌임했을 것이다. 어찌 필부필부가 랑을 위하여 구독에서 자정하고도 아는 이가 없는 것과 같겠는가!" (《논어·현문》)

관중이 제환공을 보좌하여 제후를 패련하고 공부주실하여 만이의 침입을 저어하고 춘추 제일의 위대한 패업을 성취했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관중을 인으로 칭허하여 그 제자 자로와 자공의 질의를 인기했다. 공자의 인에 대한 계정은 내재 심성의 인도 있고 외재 사공의 인도 있는데, 자공, 자로는 관중이 자규를 위해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공을 보좌했으니, 탐생파사하고 구주를 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반복무상하여 구주를 배반했다고 여겨 내재 심성 도덕상 관중을 부정했다. 그러나 공자는 관중의 역사 공적을 송양하여 사공의 인의 고도에서 관중을 칭찬했다. 공자가 보기에 관중이 제환공을 보좌하여 구합제후한 것은 자기가 패하거나 칭왕하여 주를 취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왕"으로 패도로 주례를 유호하여 민중이 "피발좌임"의 운명을 면하게 한 것이다. 후세 유자 경생이 관중을 공격했는데, 송유 진양(陳襄) 같은 이가 관중이 "비록 제를 패강하고 주실을 존중하며 구합제후하고 천하를 일광했지만 모두 권사의 힘이니 어찌 도할 만한가"라고 극히 경멸했다. 강유위는 송유가 사공을 비박하고 관중을 공격한 것이 "공자의 교지를 크게 잃은 것이니, 전중내이실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유술의 우를 조소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논어》가 제환칭패를 보조한 관중을 칭미한 것에 대해 강병장은 이에 거하여 《좌

전》이 존왕중패한 것이 공자의 본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강령》하에서 말하기를:

좌씨의 의는 먼저 존왕에 있고, 존왕은 부득불 중패한다....무릇 만세의 인심으로 논하면 패자는 마땅히 출해야 하고, 춘추시세로 논하면 패자는 마땅히 존해야 한다. 패자가 마땅히 출해야 하는 것은 그가 인의를 가하고 양으로 주실을 존중하는 명을 하고 음으로 자사자리의 실을 수하기 때문이다. 고로 공자는 기가 소하다고 여기고 맹자는 삼왕의 죄인이라 여겼다. 그러나 인의를 가하는 자도 여전히 인의가 미함을 아는 것이다. 양으로 주실을 존중하는 명을 하는 자도 여전히 주실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함을 아는 것이다. 차호, 동천 이후 천자의 상에서 박을 구하고 금을 구해도 응할 수 없고, 왕실이 상으로 부할 수 없음에 이르렀다. 천왕이 제후를 수하여 오생이 조하지 않은 죄를 토하려 하니 왕의 견을 사했는데, 이때 가인장으로 천자를 존중하는 자를 구한들 얻을 수 있겠는가? 관수방물하여 그 직공을 수하고 쇠주로 하여금 여전히 인심에 계하게 하는 것이 패자의 힘이다.

강병장은 패업에 대한 평가를 특정 역사 시세 중에 두고 고량하여 "좌씨의 의는 먼저 존왕에 있고, 존왕은 부득불 중패한다"는 명제를 제출했다. 그는 먼저 "만세의 인심"의 이상 유도에서 패자가 "가인의"로 인해 "당출"해야 하지만, 춘추시기 주실쇠미하고 이적교침하는 "춘추시세"의 역사 유도에서 패자는 질서를 유계하므로 "당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보기에 주실동천 이후 패주미성 이전에 사회질서가 혼란하여 정장공이 왕을 쏘아 견에 맞히는 등 왕권소지 사건이 발생했고, 동시에 "융적변중국"하여 제국을 공벌했으나 그 죄를 정할 수 없었다. 그런데 바로 패주의 출현으로 제후가 관수방물하고 조기직공하여 "쇠주로 하여금 여전히 인심에 계하게 한" 것이고, 동시에 "춘추의 세를 중하여 융적이 소안한 것은 맹주가 그 명을 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강대한 패주의 출현은 주왕실의 체면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춘추시기의 정치질서를 유계했다. 따라서 강병장은 관중에 대해 많이 포장하여 "이백사십이년 열국이 여전히 주실을 아는 것은 관중의 힘이다"라고 여겼다. 가견 강병장의 "존왕부득불중패"의 논단은 공자가 《논어》에서 관중을 평가한 것과 실위동조이며, 양자가 "존왕중패" 의리내핵상 약합부절하다.

《좌전》은 성인의 중"례"에 삼치의를한다. 《사기·태사공자서》에서 춘추에 중다한 시군

망국의 일이 출현한 것은 모두 "그 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 "본"이 바로 이른바 예악질서이다. "예붕악괴"와 "인심부고"는 공자가 사회운륜의 실조와 생활절주의 혼란에 대한 가장 진절한 생존체험이다. 따라서 공자는 예악을 가장 중시하여 "주례"의 화해, 유서를 회념하고 "극기복례위인. 일일극기복례, 천하귀인언"이라고 고호했다. 공자는 단순히 주례의 구체 규정을 회복하거나 이미 "허문"으로 룬한 주례를 단순히 조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인인개가준행, 수유불가리의 보편윤리규범으로 소조하여 인의 생명내함을 진정 주례에 주입하고, 동시에 "위국이에"를 주장했다. 《논어》에서 "능이예양위국호, 하유? 불능이예양위국, 여예하?"라고 하여 "예"를 치국안방의 근본원칙으로 여기고 주례질박의 자연윤상을 진정 정치질서의 근기로 삼았는데, 서복관이 말한 것처럼 춘추시대는 "예를 중심으로 한 인문세기의 출현"이다.

이런 사상은 동양 《좌전》 전서를 관통한다. 정현은 "《좌전》은 예에 선하다"고 했다. 위진시인 순송(荀崧)은 "공자가 《춘추》를 지었는데 미사묘지로 의가 현명하지 않다. 당시 좌구명, 자하가 조슬친수하여 정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공자가 기몰하여 미언이 장절하려 하자 이에 구명이 퇴하여 소문을 찬술하여 전을 만들었다. 그 서는 예에 선하고 고유미사가 많으며 장본계말하여 경의를 발명하니 신다기위하여 학자가 좋아한다"고 했다. 《좌전》이 예악을 언급한 곳이 460여 처에 달한다. 예를 들면:

예는 국가를 경하고 사직을 정하며 민인을 서하고 후사를 리하는 것이다. (은공 11년)

정은 예로 이루어진다. (성공 12년)

예는 정의 여이다. 정은 신의 수이다. 태예실정하면 정을 잃고 입하지 못하니 이로써 난이다. (양공 21년)

예가 정에 대함은 열이 탁을 가짐과 같다. 탁으로 열을 구하니 무슨 환이 있겠는가? (양공 31년)

고로 강병장은 여긴다:

전이 경의를 발명하는 것은 모두 주례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그가 주례에 공이 있는 것이 크다.

"예"자 하나가 일부 《춘추》의 주뇌이다. 천택의 분, 중외의 방, 치란의 고는 모두 예에서 변한다.

"서"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도 총귀결하여 "예"자에 이르니, 예로 분이 정해지면 무엇 때문에 질하겠는가? "예"자 하나가 일부 《춘추》의 강이다.

강병장은 《좌전》과 《논어》 양자가 상표리함에 입각하여 중대한 의리를 천술했는데, 그 연결의 내핵은 하나의 "예"자에 있다. 강병장은 《독좌보의》에서 "예"를 핵심가치로 하는 경전 천석 체계를 구건했다. 그는 명확히 "예"자가 일부 《춘추》의 주뇌라고 제출하여 예를 경의를 이해하는 관건으로 여겼다. 이 천석 체계는 세 층차를 포함한다: 먼저 예는 사회질서를 유계하는 근본 준칙으로 "천택의 분"을 통해 등급질서를 확립하고 "중외의 방"을 통해 문명변계를 획정한다. 다음으로 예는 역사사건을 평판하는 가치 척도로 일절 "치란의 고"는 모두 예를 준칙으로 변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는 기타 도덕범주를 통섭하는 종극 의거로 "서", "신" 등 덕목이 최종적으로 모두 예의 규범에 귀결한다. 이를 위해 강병장은 심지어 《좌전》이 행사가 "예"에 합하는지로 인의 화복을 판단하며 "유례즉안, 무례즉위"의 원칙에 삼치의한 후 "예양이 가여위국"함을 안다고 지적했다. 문공 3년처럼:

동, 진이 강고로 주에 고했다. 왕숙환공, 진양처부가 초를 벌하여 강을 구하고 방성에 문하다가 식공자주를 만나 돌아왔다.

진인이 그가 공에게 무례할까 두려워하여 개맹을 청했다. 공이 진에 가서 진후와 맹했다. 진후가 공을 향하여 《청청자아》를 부했다. 장숙이 공으로 강하여 배하고 왈: "소국이 대국의 명을 받으니 감히 의를 신하지 않겠습니까. 군이 대례로 관하시니 무슨 낙이 이와 같겠습니까. 억 소국의 낙은 대국의 혜입니다." 진후가 강하여 사했다. 등하여 배를 성했다. 공이 《가락》을 부했다.

이 단락 기재는 춘추시기의 전형적인 외교사건을 강술했는데, 그 핵심은 진국이 이전에 노문공에 대한 무례 행위를 미봉하기 위해 진행한 구호를 중수하려는 외교활동이다. 전체 과정은 기락용융하여 엄격히 주대 방문향연의 예를 준수하고 부시언지의 방식을 통해 양국관계를 수복하여 "예"가 제후국관계를 조절하는 핵심 준칙의 중요 공능을 생동하게 체현했다. 강병장 《독좌보의》에서 운:

전급처부맹, 휘불서공, 이차여진급진후맹부지지자, 견진양지능개과야. 전술기빈주사양, 피차부시, 구기무례, 졸귀어례, 이발명여진후지의.

그는 민예하게 이 단락 서사 중 "예"의 동태 실천 과정——"구기무례"에서 "졸귀어

례"까지의 완전한 전변을 포착했다. 진후가 선전 "무례"가 가능하게 인발한 정치위기를 의식했기 때문에 고로 주동적으로 "청개맹"했는데, 이 행위 본신이 바로 "예"에 대한 자각적 회귀로 진양공이 "예즉위"에 대한 청성한 인지를 체현했다. 그가 향연에서 《청청자아》를 부하여 경중을 표하고 "강, 사, 등, 성배"의 완전한 의절을 준수할 때 전현한 것이 바로 "개과"의 구체 실천이다. 강병장이 보기에 이런 "무례"에서 "귀어례"로의 전변 과정이 바로 "유례즉안"의 정치논리의 생동한 체현이다. 따라서 강병장은 《좌전》의 이 단락 기재가 주로 "진양지능개과"의 의를 포장하기 위함이라고 여겼는데, 그가 예제를 집수함으로써 외교위기를 화해했을 뿐 아니라 진국의 도덕형상을 중소하여 "예양지가여위국"의 심각한 도리를 충분히 증명했다.

(2) 다케조에 미츠히로가 《좌》로 《논어》의 역사 어경을 환원하다

강병장의 천석 경로와 다르게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깊이 역사의식을 갖춘 전석 경로를 전시하여 이적역심하고 《좌전》 사실을 빌어 역사 어경의 재건에 치력하여 《논어》 문본 관련 사건이나 인물 생명의 역사 현장을 환원했다.

1. 경문자구의 원생 어경 환원

《좌전》과 《논어》 양서가 처한 언어 계통 시대가 접근하므로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좌전》 사실을 원용하여 《논어》의 경문자구를 해석하고, 《논어》 시대와 가장 접근한 "동시대 문헌"으로 "언어호증"을 진행하여 경문자구의 원생 어경을 환원했다. 《위정·자왈시삼백》장에서 "일언" 이자에 대한 소해처럼:

일언이폐지자, 진한이래 시유구칭, 고자위지위언. 《좌전》: "신지업, 재양지수졸장지사언." 조간자칭: "자대숙유아이구언." 개이일구위일언야.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좌전》 중 "졸장지사언" 및 "유아이구언" 등례증을 원인하여 선진시기 "언"이 기본 언어단위로서의 특수 내함을 제시하고, 《좌전》 시대 "개이일언 위일구"라고 여겼는데, 그러나 그가 《좌전》 중 "일언"의례를 인용한 목적은 왜 "일구이폐지"가 아니라 "일언이폐지"인지에 있다. 구기 원인은 진한 이후에야 "일구"의 설법이 있고 이전에는 모두 "언"으로 논했기 때문이다. 이런 《좌전》을 빌어 선진문본을

중신 심시하고 경전이 원생 어경에서의 표달 절주와 의의 단원을 회복하는 것은 경전을 강화된 자사훈고에서 해방시켰다.

다케조에 미츠히로가 《좌전》을 빌어 하나의 사를 해석하려는 것뿐 아니라 하나의 장경을 복활시키고 일종 역사 현장을 재건하려는 것이다. 《위정제이·자왈오여회언》에서 "사"자에 대해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논문:

사위사어. 《좌전》문4년, 사행인사언. 양16년, 국자사안평중사어숙향. 사자여차동, 불필언언거독처. 기재문하, 여제자강명토론자, 개시사의. 여자하고번지, 순환어증거고도, 증자고문인충서이이의, 시기류야.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주자가 "사"를 "언거독처"로 석한 것을 박척하여 이를 송명이 학이 편중 내재심성의 "신독" 틀에서 해방시키고 춘추시기 특정 역사문화 현장 중에 중신 치입했으며, 《좌전》 외교장경 "사어"의 유비를 통해 공문제자가 과후 상호 강습, 변론하는 장경을 복활시켰다.

2. 역사좌표와 화어현장의 환원

《논어》는 어록체 경전으로서 그 문본 특성이 공자 및 그 제자의 매단 언론이 모두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 식근했음을 결정한다. 이런 화어 현장을 환원하고 《논어》중 구체적인 생명체를 감수하려면 시간 발생의 시간, 지점 등을 변명하여 그 역사좌표를 구건해야 한다. 《팔일제삼·공자위계씨》중 전문처럼:

《좌전》소공25년왈: "장체어양공, 만자이인, 기중만어계씨." 장손왈: "차지위불능용선군지묘." 팔일무어정, 언차년사야. 기중만어계씨, 소위팔일이.공자차언, 정재소공미출분지전, 견기이발야. 전위기중만어계씨, 어차시견어전이, 전호차불지시어하년야. 공자이지평자장유란궤, 특어기무팔일증지, 고유시가인숙불가인야지언. 약지위팔일, 상불운인불인이. 지어급환자시, 공자기사, 행호계손, 차등참제, 필차혁지의.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팔일무어정" 이 사건과 《좌전》 소공 25년의 기재를 계련했는데, 단순한 사료호증이 아니라 공자 발언의 현장감을 증구하기 위함으로, 공자 언론이 유생한 구체적 정치 정경과 권력구조를 제시하는 데 지재한다. 공자의 비판은 정태의 예제비평을 초월하여 계손씨 전정이라는 동태 정치진정에 대한 심각한 동찰과

예정으로 전화했다. "시가인, 숙불가인"의 논단은 인이 공자가 소공미분 전석, 정치평형이 즉장 철저 봉해하는 관건 절점에서 그 정치민감도에 기초하여 발출한 간예성언론으로 해독되었다.

또 《팔일제삼·애공문》 중에서 사건 발생 지점을 가이 환원했다. 그는 먼저 《좌전》에 의거하여 "애공4년 박사재"와 《논어·팔일》 "애공문사어재아"가 동일 사건임을 확정하고, "애공3년 계환자줄, 소공자이계강자불가"의 기재와 결합하여 이때 공자가 여전히 진에 기류하고 노에 있지 않음을 증명했다. 다케조에는 계년정위와 사건관련을 통해 엄밀히 "애공문사" 시 공자가 여전히 진국에 있다는 시공좌표를 추도하여 그 언론에 확정한 역사 어경을 제공했다. 이 장 대화 중에서 재아라는 사람의 신분에 대해 다유 의견이 불일한데, 정초, 사마천이 모두 제국의 감지로 오이했다. 어경 중 주각의 모호에 대해 다케조에는 동양 가이 변명환원해야 한다:

부어요순지어견《맹자》, 차재공자신후가지. 황유일대좌증재《좌전》호? 애5년, 제공자양생분노. 6년 진결사소양생, 감지지지, 선대제외. 공자왈: "사미가지, 반여임야 처." 양생수지제, 진결립지, 시위도공. 10년, 도공줄, 자간공임립. 간공지재노야, 감지유충언. 급즉위, 사위정. 14년, 진항살자아이시간공. 안《사기》공자진채지액, 재아여언. 자서왈: "왕지관윤유여재여자호?" 차애공6년사야. 시년재아종공자어진채, 불재노, 안득유선대양생, 반여임처지사? 즉감지지비재여, 불대변이명의.

동양 《좌전》을 빌어 인물 본래 진상을 환원한 것에는 《자한제구·태재문어자공》 중 태재가 오택재라는 것, 《팔일제삼·계씨려어태산》 중 계씨가 계강자라는 등 중다한 안례가 있다.

3. 공자 생명감수와 생존상태의 환원

《좌전회전》의 천석 경로에서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좌전》 사사를 빌어 공자를 구체적 역사 정경에 치신시켜 그 생존상태와 정신세계가 구체적인 역사 어경에서 일종 선활한 정현을 획득하게 했다. 그가 진채 사이의 "절량"을 예로 들면,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위령공제십오·재진절량》 전운:

기소이핍식지고, 불인어외어광, 우인어병란자. 외어광, 유불지절량. 유피어병유절

량야. 좌애공원년전왈: "추팔월, 오침진, 수구원야." 개공자과광, 수지어진채지간, 장이적초이, 이불우오사적경채침진, 공자재진채지간, 조부득행, 고소휴지량진, 이피병지지, 인개차원, 수량절이불의간인, 고종자병막능흥야. 차시초소왕유현명, 이초원어송, 공자과광지후, 장적초, 위출어외지소불의, 유적초, 고로경진채야. 연불도오사자연주래, 북침진지동남, 고진채지간, 개위오사소해, 도로불통, 이자량핍절야. 일시지련조액난, 소위군자유궁야.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재진절량" 사건에 대한 전주는 바로 그가 공자 생명감수와 생존상태를 환원하는 이 천석 경로의 전형 실천이다. 그는 "절량"을 단순히 "외어광"에 귀인하지 않고 《좌전》 애공 원년 "오침진"의 사실을 구침하여 일립체이복잡한 역사장역을 구건하고 공자의 곤역을 핑대한 전쟁 배경 하에 치입하여 완전한 사건련조를 환원했다: 공자가 송국 사마환외의 해를 피하기 위해 남적초국을 계획했는데 이는 본래 명지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마침 오사가 연주에서 와서 북으로 진의 동남을 침범하여 진채 사이가 통행할 수 없게 되어 공자 일행이 "조부득행, 고소휴지량진"하게 되었다. 우위중요한 것은 다케조에가 곤경의 쌍중 유도를 제시한 것이다: "자량핍절"의 물질위기와 "수량절이불의간인"의 윤리곤경이 성공적으로 공자를 도덕부호에서 역사 중의 생명개체로 환원했다.

양수명은 환원의 공부에 "사실상에 귀도하고 명사개념에 정류하지 않는 것"이라 했는데, 《논어》 중의 매 구화는 모두 그 역사장경이 있고 심지어 "일종 생활의 사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다케조에는 《좌전》 등 무잡한 사학재료를 빌어 사건이나 인물생명의 역사현장을 환원하여 진실이구화하게 했다. 따라서 김배의는 "다케조에에게 있어 《논어》를 전석하는 사명은 성인 공자의 도, 즉 진리를 천명하고 전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케조에에게 있어 경전을 전석하는 것은 경전문본을 잉육한 그 생활, 역사, 의식의 세계를 중신 체험하고 재차 인식하는 데 있다"고 여겼다.

4. "표리설"의 돌파와 다케조에 미츠히로 체계의 구건

청대 학술이 다케조에 미츠히로에 미친 영향을 학자들은 많이 청대 건가고거학에 귀한다. 에도 중기에 청대 고거학 저작이 대량 일본에 전입되었고, 다케조에 미츠히

로의 "삼전"의 작은 청대 고거학 성행의 배경 하에서 산생했다. 오봉은 다케조에 미츠히로가 《논어》를 전주한 특색을 논급할 때 전주체례에서 입수하여 이 책이 체례상 "청유작소의 방식을 방효"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교감경본과 훈고자의 방법도 청조 고증학과 상동"하여 청조 고증학파의 학술정화를 진득했다고 여겼다. 김배의는 《논어회전》 일서의 주소방식을 소리총결하여 "청조 고증학의 특장을 융회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여이전에 대해 손혁남은 다케조에 미츠히로 《좌씨회전》 일서의 훈고지정심이 청대 진가명가 제여 "강영, 대진, 단옥재, 왕념손, 왕인지 등 학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겼다.

실제상 진가고거지학 외에 청대 경사관계의 관념사상도 동양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삼전"의 작에 영향을 미쳤다. 진가학술은 고거를 성으로 삼아 "자혜대지학성행어세, 천하학자단치고경, 락섭삼사, 삼사이하망연부지"했다. 전대훈은 치학출입경사하여 사로 명도하고 "경사무이"론을 제출했다. 최술은 "성인지도, 재육경이이의. 이제, 삼왕지사, 비재어《시》, 《서》, 공자지언행, 구어《논어》. 문제시, 즉도재시, 고공자왈: '문왕기물, 문부재자호?' 육경이외, 별무소위도야"라고 여겨 고사, 육경, 도 삼위일체를 지적하고 그 고신고사의 목적이 도통의 합법성과 육경의 가신성을 논증하는 데 있다고 했다. 장학성은 그 종을 계하여 "육경개사"설이 있다: "육경개사야. 고인부저서, 고인미상리사이언리, 육경개선왕지정전야." 다케조에 미츠히로 《〈좌씨회전〉총론》》중에서 최술을 인용: "부경사자, 자한이후분별이언지이. 삼대이상소위경자, 즉당일지사야. 《상서》사야, 《춘추》사야. 경여사, 공미가분야." 이를 빌어 자기의 경사관계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는데, 가견 그가 청인이 선창한 경즉시사의 사상을 접수했다. 따라서 무론 강병장의 "상표리"이든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진량설"이든 청대 경사관계 관념 영향 하의 산물이다.

두 사람의 《좌전》과 《논어》 관계에 대한 사고는 그 상사한 점이 있는데, 큰 각도에서 말하면 모두 "상표리" 이 설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케조에의 론은 강병장의 설에 대해 계승도 있고 돌파도 있다. 18세기부터 청인 저작이 육속 일본에 전입되었는데 강병장의 《독좌보의》를 포함한다. 그는 《좌씨회전》자서》에서 그 설경이 "소동연지심으로 소동연지도를 구하니 하필 피아의 별을 그 간에 용납하겠는가"라고 했는데, 그가 《좌씨회전》에서 원인한 청대 학자 중에 강병장이 있어 필연 강병장의 《좌전》

《논어》 관계에 대한 견해의 영향을 받았다. 비록 강병장의 상표리는 "이경해사"로 《좌전》을 《논어》 심법의 주각으로 여겨 의리를 천발하는 데 지재하고,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이사증경"으로 《좌전》을 《논어》의 시대배경으로 여겨 어경을 환원하는 데 지재하며, 전자는 "리"와 "사"의 표리이고 후자는 "언"과 "경"의 표리이다. 그러나 강병장이 제출한 "성인지심법구견어《논어》, 이좌씨무불여지상표리"는 일강령성의 논단이다.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이 강령성 논단을 접수하는 기초상에서 "《좌전》위수사지진량"을 제출했는데, 이 논단의 구체화, 방법론화의 발전으로 볼 수 있으며, 논단에서 진일보 "여하상표리"의 문제를 회답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강병장 "표리설"에 대한 돌파는 겸용병축의 학술시야에도 있다. 강병장이 주로 중국 경학 전통 내부에 입각하여 천석을 진행한 것과 달리 다케조에 미츠히로는 일위 일본 한학가의 신분으로 자각적으로 학술 집대성자의 각색을 연기했는데, 그는 "회전"의 형식으로 한당송명청 이래 학자의 저작 외에도 일본 본토 에도 고학과 등 유파의 학문을 검괄했으며, 에도 선유 범 26인을 징인하여 "집중설절중지"했다. 특히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 쇼요(昭陽) 부자의 "어유"의 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해경 경로에 지관중요한 방법론 지탱을 제공하고 선명한 일본 본토화 학술 특색을 부여했다. "어유"는 즉 "명성어지소유출야"로 최초로 가메이 난메이의 《논어어유》에서 출했다. 난메이가 보기에 《논어》 중의 대화는 그 역사배경이 있으므로 성인의 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대화의 배경을 환원하고 발어의 원유를 이해하는 것이다. 다케조에는 더 이상 《좌전》 사실과 《논어》 의리가 "상표리"하는 정태 대응관계를 증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어유"를 탐구하는 법을 채용하여 《좌전》 등 사실을 빌어 역사 어경의 재건에 치력하여 강병장 "표리설"에 대한 창조성 초월을 실현했다.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강병장 "표리설"에 대한 돌파는 다케조예학 학술체계의 구건에 방법론 의의를 제공했다. 다이쇼 6년 오사가 신문에 게재된 다케조에 미츠히로의 부고에서 다케조에 "삼전" 학술체계의 구건논리에 대해:

그의 사업의 목적은 공자의 도를 천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는 먼저 반드시 공자 시대의 시세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여겨 《좌씨회전》 일서를 저작했고, 또 그 인정풍속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겨 《모시회전》 일서를 완성했으며,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저작 《논어회전》도 이미 탈고했다.

이 단락 보도에서 다케조에 미츠히로가 공자의 도를 천명하기 위해 환환상구의 학술체계를 구건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좌씨회전》으로 춘추 정치시세를 환원하여 사상을 이해하는 궤관배경으로 삼고, 《모시회전》으로 시대 인정풍속을 중구하여 구체적인 생활어경을 전현했다. 최종적으로 이 역사실증 기초상에서 《논어회전》을 완성했다. 다케조에 미츠히로 해경 경로의 돌파는 "삼전"의 내재논리 실현에 방법론상의 기능을 제공했다.